

기획

광주일보 제4기 독자위원회 4차회의

일시: 2010년 11월 8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 4기 독자위원회 2010년 4차 회의가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했다. 출장으로 불참한 안재오 위원(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성의를 보였다.

본사에서는 박치경 사회부장이 참석했다.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광주일보의 지면개선안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회문제 제대로 진단한 다문화 가정 기획 신선”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한달 21번의 기고중 단체장·공무원이 15번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위원장) = 최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제8회 광주비엔날레, 서구청장 재선거 등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시민·독자의 시각으로 광주일보에 대한 가장 없는 의견을 부탁 드린다.

▲이묘숙(송은갤러리 관장) = 지난 7일 폐막한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기사 대부분이 비엔날레재단의 보도자료에 의존해 홍보 비중이 컸다. 비엔날레의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웠다. 특히 같은 기간 진행돼 작품성, 전시안정성, 관객 반응에서 성과를 보인 부산비엔날레의 분위기를 현장 취재해 기사화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다만, 폐막을 하루 앞둔 11월6일자 1면 톱 '이젠 광주를 위한 비엔날레를'이라는 기사는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기사였다. 최근 사회면이 우울한 기사들로 장식되고 있다. 목표 '마담노트' 사건은 5차례 이상 기사화됐고, 10월13일자 '혈세만 축낸 버스승강장 LED조명 무용지물' 기사도 문제점만 지적하고 방향제시에는 소홀했다. 9월10일자 '친구를 구하고 숨진 50대 우정'이라는 기사는 따뜻한 내용이라서 눈길을 끌었다.

▲조미옥(나주 봉황중학교 교사) = 매주 금요일 오프니언란에 게재되는 테마칼럼이 돋보인다. '교육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지적한 칼럼은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만 설명하고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세한 정보는 다루지 않아 심층보도가 필요하다. 기자노트, 데스크시각 칼럼 주제가 너무 정치분야에 치우쳐 있다. 독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실생활과 연결된 기사들이 홍보에만 그치고 있다. 10월22일 '학교 체육 시설 주민에게 개방', 10월27일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사가 나왔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학교체육시설이 어떻게 개방되는가와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는 없다. 어떤 점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과정과 결과에 대한 후속기사가 필요하다.

▲이철감(조선대 의과대학교수) =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점을 테마로 한 기획기사가 신선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다문화가정과 자녀에 대한 내용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적절히 짚어 주고 있다.

최근 2개월 동안 최대 이슈는 F1대회였다. 광주일보도 F1관련 기사를 10월 한 달 동안 1면에 11번을 내보냈다. 하지만 기사 대부분이 홍보에 그쳐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지 못했다. F1대회는 운영상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앞으로 6년 더 개최되는 대회의 성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또 F1대회를 거울삼아 2012년 여수엑스포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를 논의해 봐야 할 때다.

▲임선숙(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사회면이 범죄 관련 기사에 너무 편중되고 있다. 또 '뜯어냈다', '빼돌렸다', '이 같은 것' 등 거친 표현들이 상투적으로 기사에 쓰이고 있다. 범죄의 행위 자체보다도 표현에서 오는 우울함이 크다.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휘를 조금더 순화하는 것이 좋겠다.

11월3일 '경찰, 민주당 주승용 의원 소환' 기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 주승용 의원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기사내용과는 관계없는 다른 의원의 이야기가 거론됐다.

▲류동훈(행복문화사업단 단장) = 11월 1일 16면 '풍선아트로

블루이웃을 돕는다'는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자신의 재능으로 남을 돕는 사람을 관심있게 다룬 좋은 기사였다. 그 사람이 했던 것들에 대한 사진이 뒷받침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기사를 부탁한다.

다음달이면 대학 입학원서를 내게 된다. 그리고 대학합격자가 발표되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사가 '서울대 몇 명 합격'이라는 기사다. 언론이 앞장서 대학과 지역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보다는 수험생들이 본격적으로 대학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광주일보가 지역대학의 발전하고 변화된 모습을 취재해 수도권 대학들과의 경쟁력 있는 점을 다뤄줬으면 한다.

▲이병우(보해양조 홍보이사) = 페이퍼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젊은 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읽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광주일보는 이 같은 젊은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광주일보 홈페이지는 페이스북, 트위터, 트위터 등 뉴미디어에 기사를 전송하거나 스크랩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 광주일보도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획기사가 눈에 띈다. 광주·전남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다. 반대로 말하면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약점보다는 장점이 더욱 많다. 이 같은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사가 작성됐으면 한다. 10월16일자 1면 '출산장려 코리아의 슬픈 그늘'이라는 기사는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기사였다. 그 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속보도도 좋았다.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광주 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패배의식이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제·산업구조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광주의 올해 수출규모가 100억 불을 넘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광산업이 있다. 광주의 대표적인 성장사업인 첨단·문화사업에 대해 '광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광주경제의 현황과 전망 등을 짚어보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특집 기사가 필요하다. 우리도 모르게 젖어있는 패배의식을 털어버리고 시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전남 지방지 가운데 광주일보만 토요일자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하지만 토요일 신문에 정작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사는 부족하다. 주말에 독자들이 읽고 싶어지는 신문을 만들어 달라.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 10월18일자 1면 톱 'F1 D-4 경주장 가는 길 점검해 보나'라는 기사는 좋았다. 기자가 직접 공항부터 F1경기장까지 가는 길을 점검하고 지적해주는 기사였다. 기자가 발로 뛰고 있는 것이 느껴져 신뢰감을 주는 바람직한 기사였다.

광주일보 17면 오프니언란에 아쉬운 점이 많다. 지난 한 달 동안 오프니언란을 모닝터링한 결과 토요일을 제외하고 광주일보는 21차례 기고란이 있었다. 21번의 기고중 단체장, 공무원 등 공직자의 기고 15차례나 있었다. 공무원들에게 광주일보가 지면을 서비스하는 느낌이 든다. 금남로에서, 데스크시각, 무등고 등 내부칼럼은 물론이고 사설에서 기고까지 한가지 이슈에만 너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같은 주제를 중복게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칼럼을 부탁한다.

▲안재오(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 = 지난 한 달 동안 광주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기사가 7차례에 걸쳐 보도됐다. 내용에 있어서 크게 변한 것이 없었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진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서열화 부추기는 임시기사 이제 그만

이병우 (보해양조 홍보이사)



광주일보 홈페이지 뉴미디어 기능 확충해야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광주·전남 유일한 '토요일자' 잘 활용을

안재오 (광주시체육회 경기팀 계장)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속적 관심 가져달라

행과정과 결과까지 일관성 있게 정리됐다. 앞으로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사화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2007년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14만500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 통계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지역대학이 소화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학과특성화 사업, 장학금, 해외 대학 자매결연 등 우수학생 지원책 홍보에 공익적 차원에서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정리=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Business/Job', 'Real Estate', 'Education', 'Food/Drink', and 'Services'. Each listing includes the business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a brief description of services offered.